종교를 바라보는 사전의 눈높이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⑫ 국어사전은 불교를 어떻게 말하나(1) 절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우리말샘〉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로 풀이하는 반면, 절은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으로 설명하고 있다. 절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승려의 거주와 활동 위주에 치우쳐 있어 재가 신도의 공동체적 종교 활동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사전은 조용하지만 힘이 세다

사전은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조용히 적어 두기만 한다. 하지만 그 한 줄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어떻게 대상을 설명할지, 어떤 예문을 대표로 보여줄지를 정하면서 하나의 단어가 세상에서 차지할 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에서 편찬하고 관리하는 국어사전은 개인 출판사나 대학·종단의 연구소에서 펴낸 사전과는 그 공신력과 사회적 파급력이 다르다. 국가 편찬 사전에서 제시하는 뜻과 예문은 일반 이용자의 어휘 이해뿐 아니라 언론과 출판, 교육과 공공기관의 언어로 다시 흘러간다. 사전은 언어 현실을 수동적으로 기록만 하는 것 같아도, 역으로 사전이 한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언중의 인식과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언어 현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전은 불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우리말샘〉에서 '절'과 '교회'를 차례로 찾아보았다. 절은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풀이돼 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묘한 차이가 보인다. 절에는 승려만 있고, 교회에는 신자가 있다. 절은 '집'이고, 교회는 '공동체'이자 '장소'다. 같은 종교 공간인데 한쪽은 특정 종교인만 머무는 공간으로 좁아지고,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로 넓어진다.

왜 절은 '집'인가

과거 〈표준국어대사전〉은 절을 "중이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는 집"이라고 풀이했다. 지금은 '중'이 '승려'로 바뀌었다. 분명 나아졌다. 그런데 '집'은 그대로 남았다.

여기서 말을 한번 뒤집어 보자. 만약 국어사전이 교회를 "목사가 십자가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고 풀이한다면 어떨까. 아마 국립국어원에는 당장 뜻풀이를 고쳐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지 않을까. 교회와 성당 같은 종교 시설은 목사나 신부 한 사람이 머무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종교 공동체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절은 다를까. 절에도 스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도들이 법회에 참석하고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배우며 수행하고 봉사한다. 그런데 사전의 정의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다. 남는 것은 불상을 모시고 교법을 펴는 승려와 그 '집'이다.

물론 '집'이라는 말 자체가 낮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어에서 '집'이 주로 어떤 대상과 어울려 쓰이느냐에 있다. '집'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경우에 따라 한 집안이나 가족을 뜻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고깃집·꽃집·빵집'처럼 물건을 팔거나 장사하는 곳에도 자연스럽게 붙으며, 종교와 민속의 영역으로 가면 '점집·무당집'처럼 무속이나 민간 신앙의 공간을 가리킬 때 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절을 굳이 '집'이라고 풀어야 할까. 절은 단순히 스님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예불하고 의례를 행하며 신앙과 수행이 이어지는 종교 공간이다. 그런데 이런 곳을 '집'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절이 지닌 성스럽고 공적인 성격은 뒤로 물러난다. 동시에 '점집', '무당집'과 같은 표현이 익숙한 한국어 화자에게 '절'은 이들과 은연중 같은 언어적 범주로 묶여 버릴 위험이 크다. '집'이라는 한마디가 사소해 보여도, 어떤 말로 부르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특정 종교 공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진다.

사전 속 교회엔 신자 있는데 절엔 승려만
종교인 공간과 함께인 공동체 차이 보여
절은 대중의 예불·신앙·수행 종교 공간
다른 나라 사전, 절을 '집'으로 설명 안 해
예문에도 뜻풀이 부족, 두 종교 풍경 달라

당신들도 '절집'이라 하지 않느냐

사실 불교계 안에서도 '절집 살림', '절집 어른'처럼 '집'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이때 '절집'은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그 공간을 정겹게 일컫는 내부자의 말에 가깝다. 마치 야구나 축구에서 선수와 팬들이 홈구장을 '안방'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홈구장을 '안방'이라 부른다고 해서 국어사전이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안방'이라고 풀이하지는 않는다. '안방'은 친밀감과 소속감을 담아 붙인 이름이지, 그 공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정의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자기 공간을 친근하게 '절집'이라 부르는 것과 국가에서 편찬한 사전이 '절'을 '집'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일본과 중국, 영어권의 대표 사전을 들여다보면 절을 굳이 '집'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는 없다. 대개 승려가 머물며 수행하는 '건물', 불교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 혹은 아예 불교의 '사찰'이라고 풀이한다. 적어도 그곳이 종교 공간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해 두는 셈이다.

아주 드물게 영어권 사전에서 불교 시설을 'house'로 설명한 예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어의 'house'는 왕가나 의회처럼 공동체와 제도·기관까지 가리킬 수 있는, 의미가 더 넓은 단어다. 그러니 영어 사전에서 'house'로 정의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한국어 사전에서 개인이 먹고 자는 '집'으로 풀이한 것이 문제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절'을 '집'으로 규정한 사전의 정의는 승려의 거주와 활동을 중심에 놓고, 재가 신도와 예불·법회·수행·교육처럼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종교 활동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결국 문제는 '집'이라는 낱말이 불경스럽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종교의 대표 공간을 누구의 공간으로 보고,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느냐에 있다.

초파일과 불안할 때만 가는 곳?

뜻풀이의 부족함은 예문에서도 이어진다. '절'의 첫 예문은 "초파일 날 절에 가다"이다. 반면 교회에는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간다"가 나온다. 절은 특별한 날에 찾아가는 곳이고, 교회는 매주 반복해서 찾는 일상의 신앙 공간이 된다. '날'과 '마다'가 만드는 풍경이 이렇게 다르다.

두 번째 예문으로 가면 차이는 더 선명해진다. 교회에는 "새 교회를 세워서 변두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베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가 제시돼 있다.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에 이어,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회적 실천의 공간으로 교회가 그려지는 셈이다.

그런데 절의 다음 예문은 "마음이 불안해지면 절을 찾는다"이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만 절에 갈까.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가고, 가족의 평안을 빌러도 가며, 법문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간다. 그런데 수많은 마음 가운데 사전이 고른 것은 하필 '불안'이다. 또 다른 예문에서는 "절에선 다섯 시면 아침 공양"이 등장한다. 예불도, 법회도, 수행도, 신도들의 종교 활동도 아닌 '밥 먹는 시간'이 왜 하필이면 '절'을 보여주는 대표 장면으로 선택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의 눈높이는 공평한가

이렇게 모아 놓고 보면 사전 속 두 종교의 풍경은 너무 다르다. 교회는 매주 신자들이 찾고, 공동체를 이루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현재의 종교 공간으로 그려진다. 반면 절은 특정한 날에 찾아가고, 불안할 때만 기대며, 아침 일찍부터 식사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사실 각각의 문장만 떼어 놓으면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 문제는 무엇을 골라서 모아 놓았느냐이다. 사전의 편향은 거짓을 쓰는 데서가 아니라, 수많은 진실 가운데 어떤 진실만 골라 '대표'로 세우는 데서 생긴다.

사전의 한 문장은 짧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어떤 종교는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현재의 종교로 그려지고, 다른 종교는 성직자의 '집'에 머무는 사적이고 낡은 풍경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집'이라는 한 단어뿐일까. 이제 고쳐야 할 것은 작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사전의 눈높이일지도 모른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